



남원 도통동, 취약가구에 김장김치 전달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18일, 관내 취약계층 24가구에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쳤다. 이번 김장김치 전달은 도통동 사랑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 '1일 1가구 소풍행진'을 통해 발굴한 취약계층 24가구를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 확인과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 어르신은 "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직접 김장할 수도 없어 너무 부담되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소선자 도통동장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김장김치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강교회 목사, 양동마을 경로당에 냉장고 기부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중표)은 지난 18일 대강교회 임안희 목사가 양동마을 경로당에 냉장고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임안희 목사는 "제가 지인으로부터 편용 경로당에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냉장고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양동마을을 진일하 이장은 "편용 경로당에 냉장고가 고장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냉장고를 후원받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며, 경로당 어르신들도 기분 좋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대강면 이아영 맞춤형복지팀장은 임안희 목사에게 감사 전하면서 "나눔의 시작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며, 각박해지는 요즘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마을운동무주지회 회원들 김장 나눔

무주군은 새마을운동무주지회(지회장 이순희) 회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김치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김장은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8백 포기)로 담긴 것으로 1백여 명의 회원들은 18일과 19일 양일간 무주여성센터 야외장에서 양념 만들기 및 배추 절이기, 버무리기, 포장 작업 등에 함께 했다. 김장은 전량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지로 전달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새마을부녀회와 장 나눔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는 지난 18일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새마을부녀회(회장 이명순)와 연계해 여성장애인들과 읍·면 부녀회장 6명이 함께하는 장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장 나눔'은 복지관 비전인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서로 돕고 나누는 세상'을 토대로 2024년 상반기 여성장애인들이 만든 된장, 간장고와 허반기에 만든 고추장을 더하여 나눔을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된 장들은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6개 읍·면 부녀회장들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 및 독거노인 10가정씩 60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가 이웃을 살피고 서로 돕고 나눔을 실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과 함께 상생, 기술개발에 심혈”

김제 '우리공업사', 버스 활용 디지털 광고 송출 '실증특례 승인' 얻어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버스 유리창 측면에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및 상업성 광고를 표출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광고'를 2년간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미디어 분야 중 하나로 광고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제 우리공업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서울지역에서 2년간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열린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의 문턱을 넘어 가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한 방식은 대형버스 좌우 유리창 부분을 확장해 투과성이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공정보 및 상업성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송출하게 된다.



버스 내부를 업무용 공간으로 개조해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사용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어 기존 이 분야 선주주들과는 달리 사실기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 등이 제한되고 총중량 증가 튜닝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사업 획득으로 소상공인 등의 광고 채널 확대가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규모는 2022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4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빠르게 성장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실증사업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경우 합리적 규제 개선과 함께 광고업체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인철 우리공업사 대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출발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앞선다"면서도 "전북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을 위해 기술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은 김제지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전북은행 김제지점(지점장 김법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건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청소년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0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보건위생용품은 생리대, 찜질팩, 파우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법식 지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24 말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여성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제시도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소방서, 11월 오픈소방서 견학 프로그램 운영

무주소방서는 지난 18일 본사에서 무주어린이집 어린이 65명을 대상으로 'OPEN-소방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서 견학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안전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사무실 견학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안전 문화 캠페인 △물 소화기 활용 사용법 교육 및 체험 △소방차량 소개 및 탑승 △심폐소생술 교육 △방화복 및 헬멧 착용 등으로 구성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운봉읍,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안전점검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동절기 대비 1일 1가구 취약계층 방문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강추위가 예고되어 더욱 취약계층의 인위가 중요하다. 이은주 읍장은 겨울철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취약 가구의 가정방문을 통해 보일러, 가스 및 전기메트 등의 난방기기 작동 여부와 거주 실태 등 현지 거주 여건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며, 적극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주민 등을 신속히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해 공공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동절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이은주 읍장은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1일 1가구 집중 방문 점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안위를 직접 살필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1일 1가구 방문을 지속해 따뜻하고 건강한 운봉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연탄 400장으로 전한 사랑... 정읍시, 이웃에 따뜻한 온기

연탄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담아, 정읍시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19일 이화수 시장과 자원봉사자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연합회, 개인 봉사자들, 상교동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상교동 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 연탄 400장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연탄 배달 차량 진입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역시 10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에 전달된 연탄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이웃의 정을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NH농협 고창군지부, 수확기 범농협 농업인 현장지원

과수원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도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 전북농협 농촌지원단, 농협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는 고창군 흥덕면 소재 소영수 농업인의 3,000여 평의 감과수원을 찾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을철 수확기 범농협 농업인 현장지원 일손돕기와 과수원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펼쳤다.

농협 계통사무소가 전사적으로 하나로 모여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현장지원 범농협 일손돕기'의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농촌지원단,

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 흥덕농협, NH농협 고창군지부 등 소속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출하용 단감과 대봉감의 수확작업을 지원했다.

이미정 NH농협 고창군지부는 "지금 농촌지역은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가 고통화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등 산고고를 겪고 있다. 농협은 항상 농업인과 함께 하는 자세로 시·군 영농지원상황실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농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수확기 관내 농업인의 현장지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19일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해 다양한 숲가꾸기 체험 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배우고, 가지치기 작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가꾸기란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리 작업을 말하며 가지치기, 슈야베기, 어린나무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빨감 나눔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1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 빨감을 지원하는 '사랑의 빨감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빨감 나누기 행사는 국유림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산림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예방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무주군 관내 겨울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에 각각 2톤의 빨감을 직접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알림

경주김씨 전국시·도 종친회장 간담회

- ▲일시: 11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연가(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 ▲연락처: 063-228-3301